가까이 가지마세요

교육미술관 동로 Museum-TONGRO

글 그림 최지윤

[교실 속 그림책] 가까이 가지 마세요 (Don't get too close**)**

2016년 7월 30일 초판발행 2016-00003

| 지은이 | 최지윤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957446-6-4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최지윤과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Cambodia.

작가의 말

한국에서 저는 많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다, 학교에 가기 싫다.' 부모님께 늘 투정을 부렸죠. 그러던 제가 작년 여름, 캄보디아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나이이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팔찌를 팔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투정만 부렸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마냥 맛있는 것 먹고 푹 쉬면서 즐거웠던 여행이 슬픈 여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아저씨가 했던 한 마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가이드 아저씨도, 나도 모두가 싫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지 아직 열심히 생각하는 중입니다. 제가 느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 삶도 달라 보이고, 투정부리는 것이 부끄러워져."

2016년 7월
최 지 윤

추천의 말

여행을 하다보면 마음을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최지윤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현지인의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는 순간, 여행에 대한 환상으로 포장되었던 것들과 실제 현지 사정의 간극을 확인하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애써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야 하는 나의 여행을 이런 것들로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좋은 것들에만 집중 하자구.'

최지윤 작가는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머뭇거렸던 순간에 집중하여 그것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에만 집중해도 무색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약한 것에 마음을 둘 줄 아는 모습이 참 기특해서 읽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최작가의 마지막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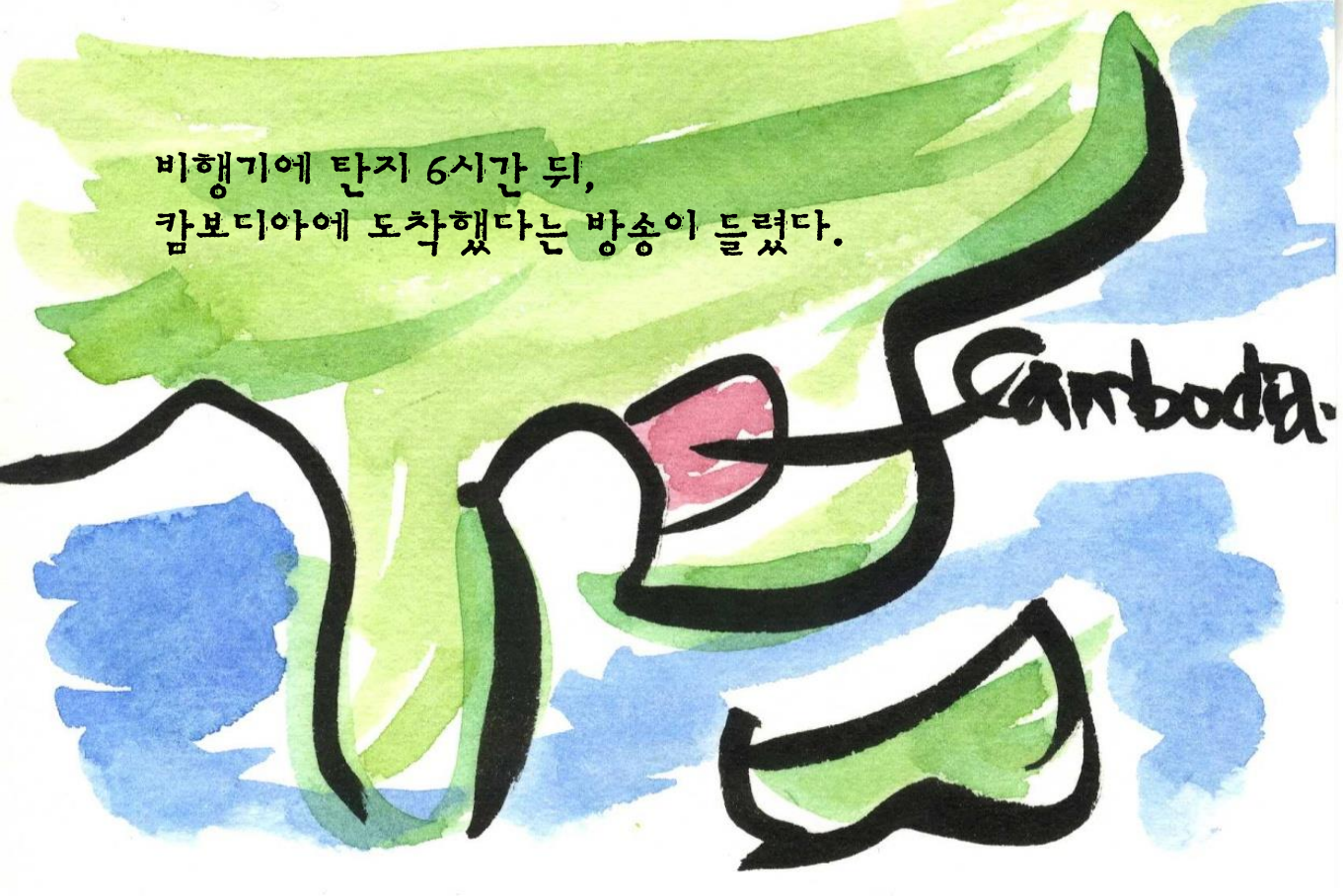
이 질문을 품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그녀가 자신만의 멋진 답을 꼭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여정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2016년 7월
교사 이 현 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캄보디아!

비행기에 탄지 6시간 뒤,
캄보디아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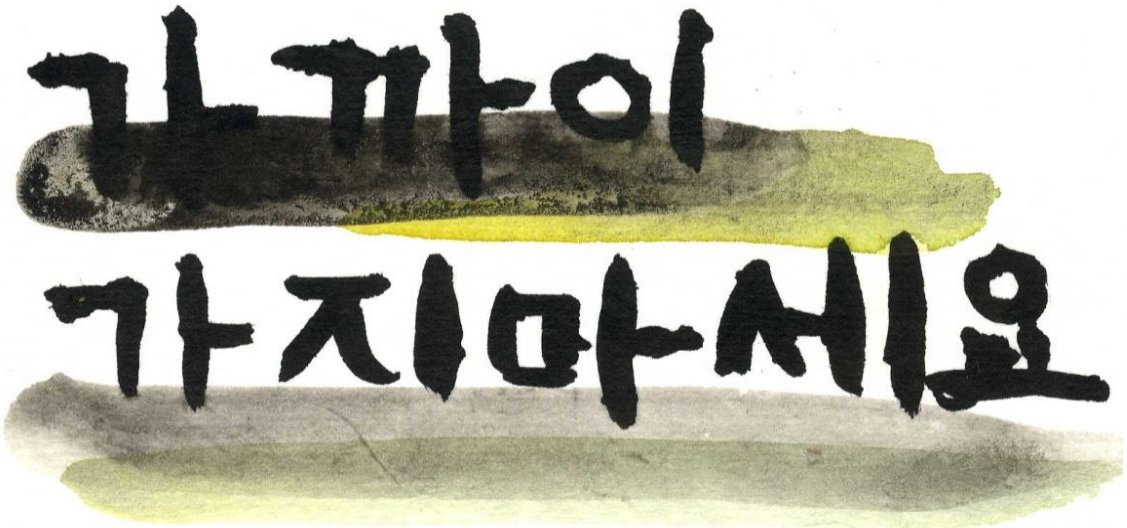
랍스터
회
새우
소라…

빵빵해진 배를 두드리며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호텔 수영장에서 하루종일 물놀이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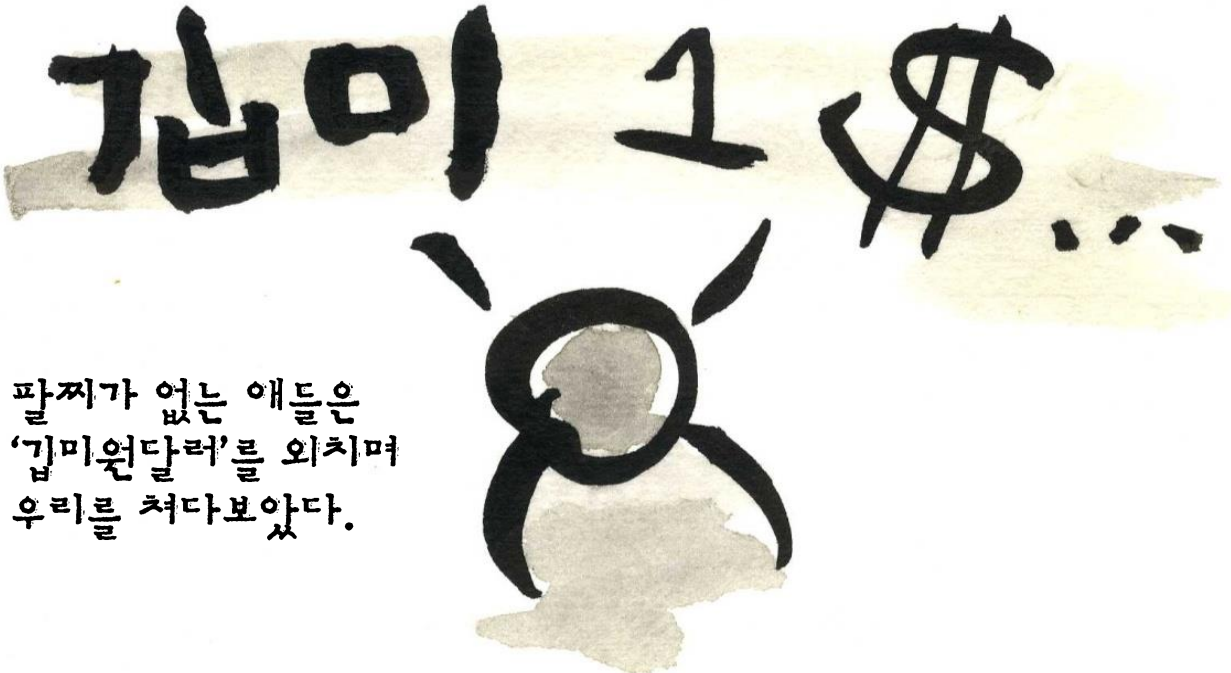
셋째 날, 버스를 타고 관광지로 이동했다.

휴게소에 버스가 서자,
내 또래만한 아이들이 올라왔다.



그러자 가이드 아저씨가 하는 말,
"이 애들, 머리에 이도 있고 냄새도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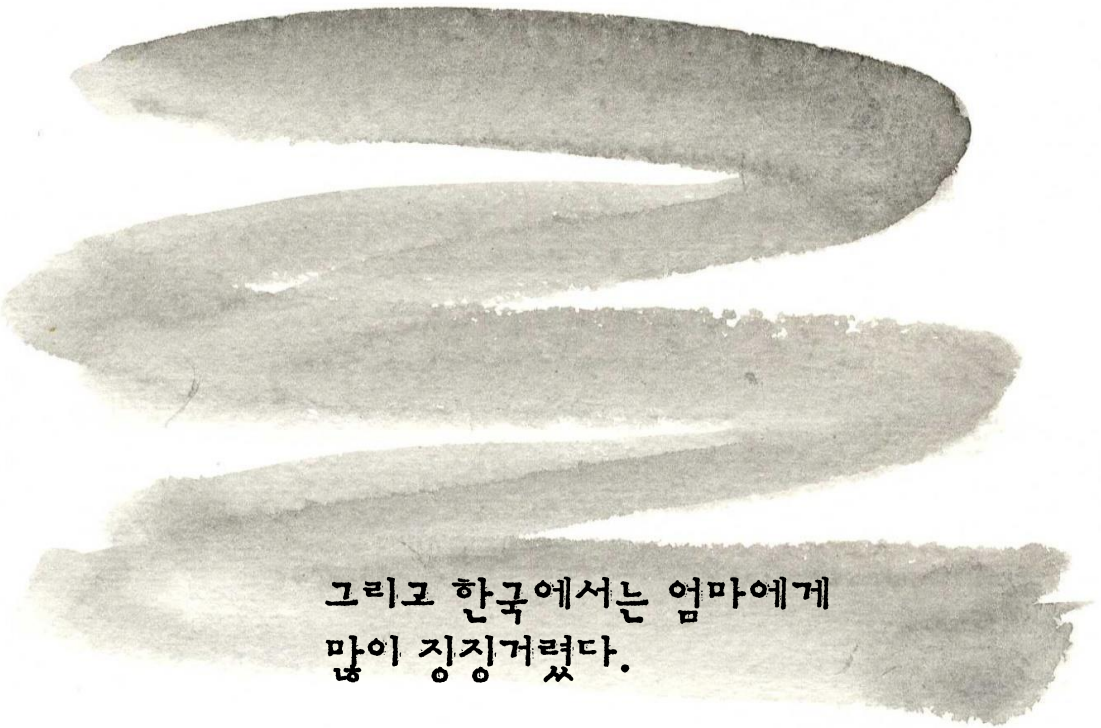
나이가 11살이나 12살 밖에 안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버스에 타서 팔찌를 팔고 있었다.



팔찌가 없는 애들은
'깁미원달러'를 외치며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난 이곳에 와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쉬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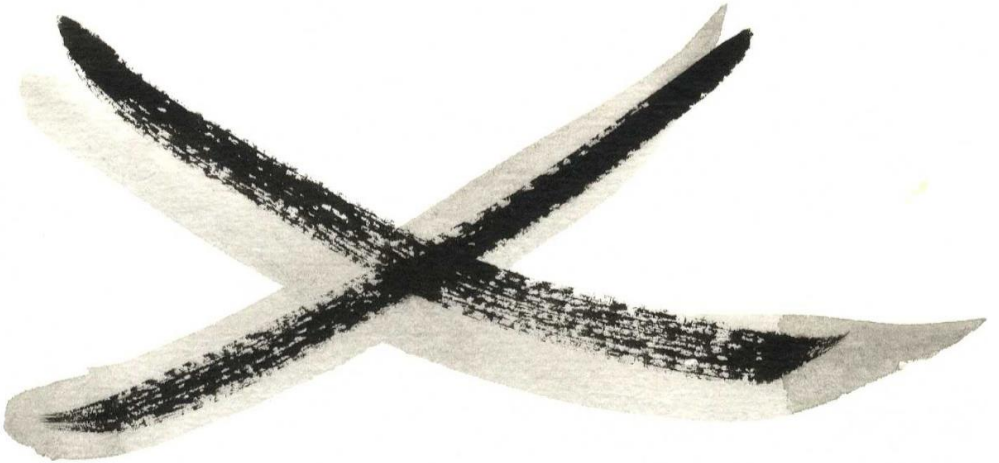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에서는 엄마에게
많이 징징거렸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엄마,
공부하기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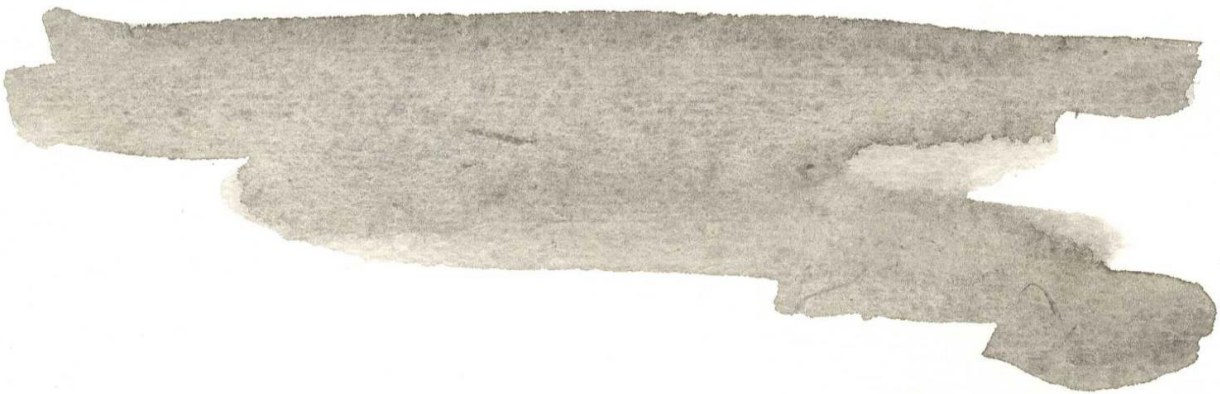
내가
너무
초 라 해 졌 다...

가이드 아저씨의 말이
귀에 아른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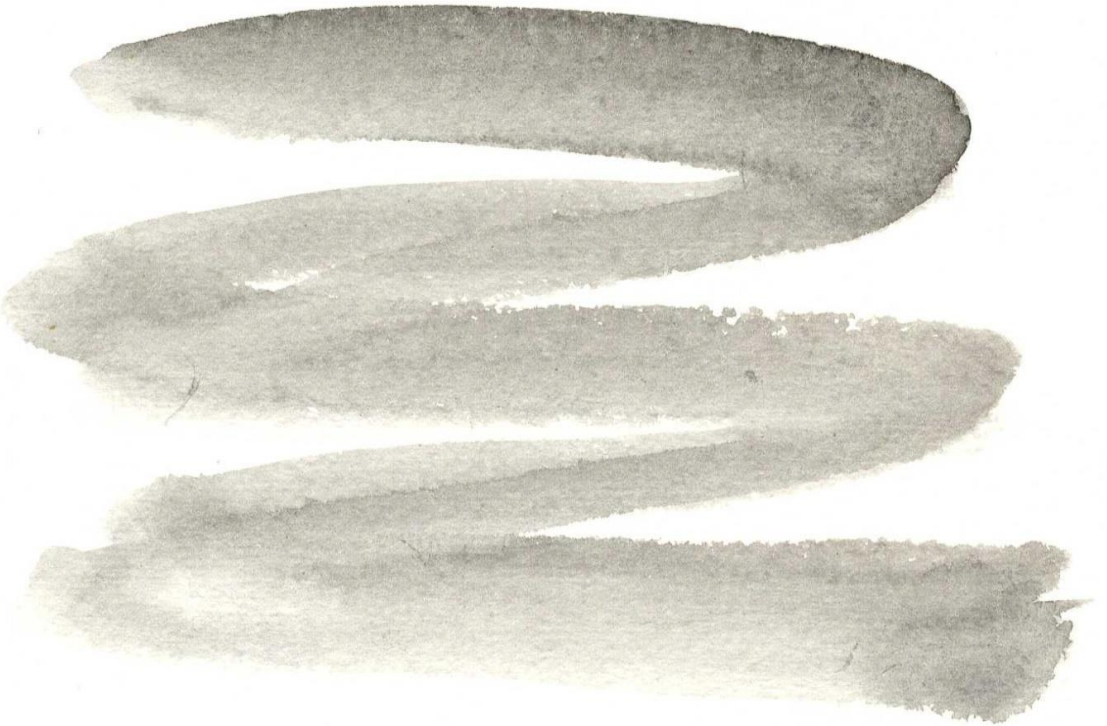


순간,
가이드 아저씨가 잃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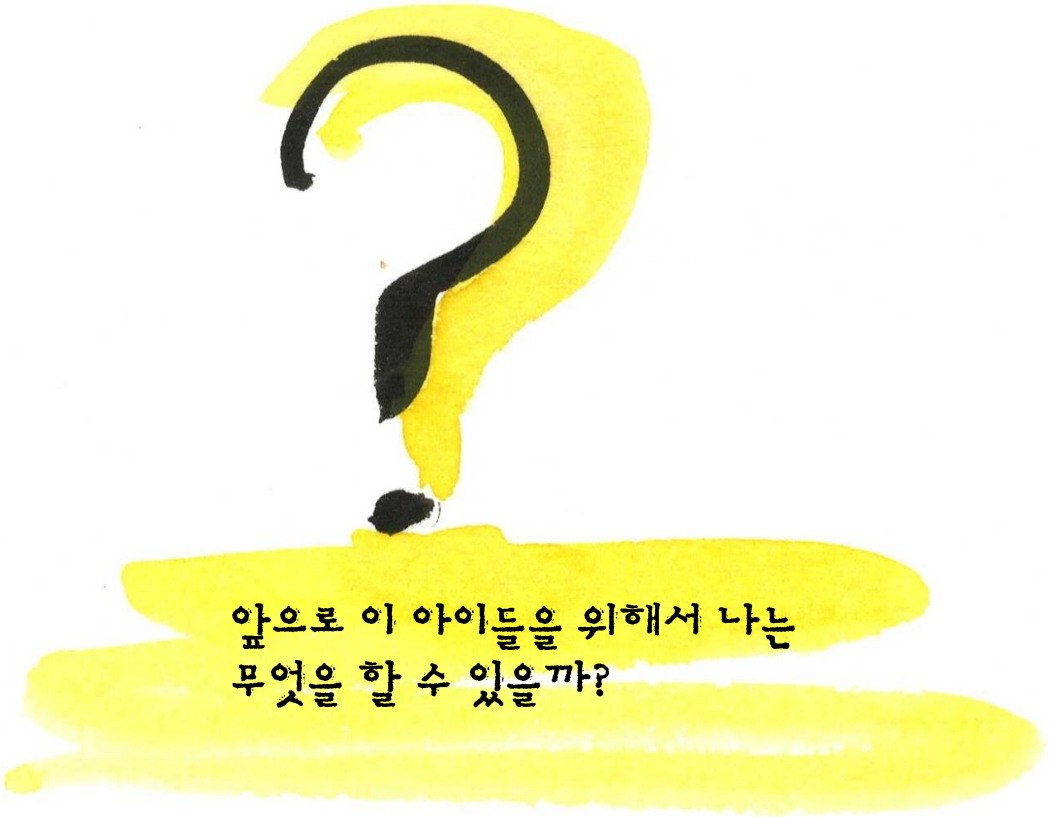
나도 싫어졌다.



즐거웠던
여행이
슬픈
여행으로
바뀌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
그 아이들이
떠올랐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Ji yoon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전자자료] = Don't get too close
지은이: 최지윤, 이현아. -- [서울] : 교육미술관 통로, 2016
전자책 책 . -- (교실 속 그림책 ; 3)

ISBN 979-11-957446-6-4 75810 : 비매품
ISBN 979-11-957446-5-7 (세트) 75810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6022903**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07088)

비매품
75810
9 791198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

교육미술관 동로
Museum-TONGRO